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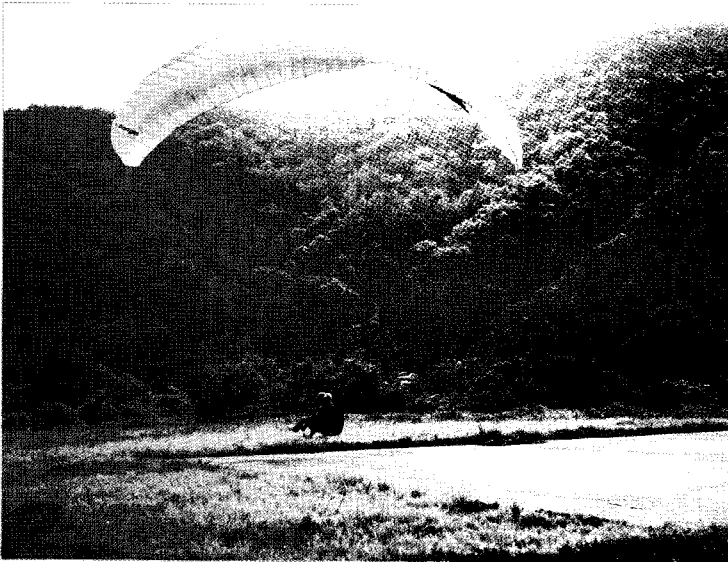


하늘에서 다지는 팀웍

한글과컴퓨터 익스트림 레포츠 동호회 '까르페디엠'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바람을 타며 날아오르는 새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가!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꿈꿔온 당신의 로망을 실현시켜 줄 멋진 동호회가 여기 있다.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수진, www.haansoft.com, 이하 한컴)의 레포츠 동호회인
'까르페디엠'이 바로 그 주인공. 패러글라이딩을 위주로 서바이벌, 모터사이클 등
익스트림 레포츠를 즐기는 한컴 사내 동호회다.

글_ 편집부 | 사진제공_ 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 _ 한글과컴퓨터는 대표 소프트웨어 제품인 한/글을 포함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제품으로 오피스 시장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3대 리눅스 배포판의 반열에 오른 '아시아눅스'를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온라인 웹오피스인 '싱크프리 오피스'로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무차입 경영의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 전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로 스트레스 걱정 '뚝'

까르페디엠은 라틴어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으로 매 순간을 충실하게 즐기면서 후회스러운 과거를 만들지 않고, 걱정뿐인 미래도 만들지 말자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 이런 동호회 이름 때문인지 2008년 여름에 생긴 신생 동호회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에 다녀온 유명산 패러글라이딩 처녀비행은 회원들에게 멋진 경험을 선사했다. 하늘, 구름 그리고 바람과 함께하는 매력 만점 웰빙 항공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회원들은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서 기초 자료와 동영상 등을 함께 공유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한컴 김은미 씨는 "첫 비행에 나선 날,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비행에 오르자, 바람이 너무 잔잔하고 고요해 편안하게 느껴졌다"라며 첫 비행의 설렘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또한 "이렇게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대하고 나면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개 패러글라이딩을 아찔한 레저 활동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의외로 고요하고 무척 편안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회 특성상 남성이 대다수란 선입견이 생길법한데, 회원 중 30%가 여성 회원이라고 한다.

결속력 OK! 한컴 최고의 동호회를 꿈꾸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굽이굽이 한참 올라서 이룩장에 도착해보면 계곡이나 능선 중턱으로 빠져 버릴 것만 같은데, 막상 기체를 펴고 공중에 떠올라 내려다보면 색다른 감동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한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자연 속에서 햇살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 여기에 신선한 공기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매력 만점의 여가 활동이 된다.

동호회원 남동선 실장은 "전문가 강습과 장비 비용 등의 문제로 개인적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게 익스트림 레포츠 활동이다. 현대 회사에서 지원되는 약간의 지원금과 동호회 운영으로 여럿이서 함께 체험하게 되니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스포츠를 통해서도 직원들 간의 단합을 이룰 수 있겠지만, 거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 얻어지는 직원들 간 단합의 정도는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며 '까르페디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회원들 간의 정과 결속력을 한껏 자랑했다.

남 실장은 타 동호회 활동보다 좀 더 특이하고 색다른 활동을 하다보니 회원들끼리의 결속력이 높아져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다시 한 번 동호회 자랑을 하고는 "아직 신생 동호회여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회사 내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동호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동호회 홍보도 잊지 않았다.

까르페디엠은 현재 총 25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패러글라이딩을 위주로 레포츠를 즐기고 있다. 날씨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클레이사격, 서바이벌, 스노우보드 등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어찌보면 조금은 위험해 보이고, 거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 하지만 일단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쾌감과 자유로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바로 익스트림 레포츠이다. 한컴의 멋진 도전과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 '까르페디엠'의 앞으로의 활동이 개개인의 여가활동을 넘어서 한컴에 도전의식과 패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동호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벤처기업의 멋진 동호회를 취재하는 코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동호회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여문의 : 벤처기업협회 대외협력팀 02-890-0632 / hongbo@kova.or.kr